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493>

JCCT 2022-11-61

淸代の 金農과 伊秉綬의 隸書 작품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lligraphy Theory between Jin Nong and Yibingshou in the Qing Dynasty

장뢰*

Zhang Lei*

요약 청대의 예서는 중국서예의 역사에 혁신을 불러왔다. 서예에 있어 중요한 금석학과 고증학이 청시대에 들어와 발전하였고, 그리하여 예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청시대에 들어와 적지 않은 서예가들이 출현하였고, 특히 금농(金農:1687-1763)과 이병수(伊秉綬:1754-1815)은 중국의 서예의 역사에 있어 예서체가 자리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서예가들이다. 금농과 이병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두 예서체의 대가들이 남긴 그들의 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예서의 미적 가능성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나아가서는 서예가로서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작품을 비교분석하여 예서의 미적 차이점을 구체화 한다. 나아가서 두 서예가의 예서가 한대(한자)의 예서를 전승함에도 불구하고 청시대의 예서사에 자리매김한 원인이 탐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시대의 예서와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체 그리고 서예의 사상과 그들의 서예작품은 예서를 비교 및 연구한다. 청시대의 서예가인 금농과 이병수 작품에 대한 비교분석은 예서의 역사적 그리고 미학적 판단에 중요한 화두를 제공한다. 이는 후세의 서예가들에게 예서체를 배울 수 있는 길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서예의 역사적 그리고 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요어 : 청대(淸代), 서예(書法), 금농(金農), 이병수(伊秉綬), 예서(隸書)

Abstract With the rise of epigraphy and textology, and the emerge of many famous outstanding clerical script masters, Qing Dynasty becomes another important innovation period in the development of the clerical script. Jin Nong and Yi Bingshou are two important clerical script masters in the Qing Dynasty. Thus, researches on the courses of their careers as well a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se two calligraphers, Jin Nong and Yi Bing, are specially important .The comparative study of Jinnong and Yibingshou's clerical script is a relatively new subject, which is entered from the angel of comparative perspective between their clerical scripts works. Through an in-depth research on different inheritance routes, which are origin from Han Dynasty clerical scripts, of Jin Nong and Yibingshou, it is found that these two calligraphers are different in innovation of clerical script style, theory of calligraphy and of clerical script practice. This paper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fferent clerical theories and clerical script works between Han Dynasty, Jinnong and Yi Bingshou. A comparative study of clerical script works of Jin Nong and Yibingshou in Qing Dynasty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understanding on these two calligraphers; meanwhile, it provides valuable learning paths for later calligrapher in the field of clerical script, and can be regarded as references in the innovation of the official script style.

Key words : Qing Dynasty, Handwriting, Jin Nong, Yi Bingshou, Clerical Script (Lishu)

*정회원,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0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9일

Received: October 31, 2022 / Revised: November 6, 2022

Accepted: November 9, 2022

*Corresponding Author: 82960818@naver.com

Dept. of Art, Dong-A Univ., Korea

I. 서론

예서의 역사를 돌아켜 보면 현대 예서는 예서의 전승기였으며 청대 예서의 대두는 예서가 새로운 시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서의 흥성시기로 볼 수 있다. 청대 초기에 첩학(帖學)이 쇠퇴와 함께 고증학과 금석학이 흥성했다. 고증학과 금석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등장했던 비학(碑學)은 후중(厚重), 관박(寬博), 기졸(奇拙)의 특징을 지었다. 이 가운데 금농과 이병수는 함께 비학의 기치를 내걸었다. 같은 시기의 다른 예서 작품과 비교하자면,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가 더욱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서예가의 이론 저서에서는 공통된 서예학 사상이 있으면서 차별된 서예학 주장도 있다.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예서 풍격의 형성 요인을 알 수 있다. 또는 김농과 이병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 몇편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주제가 여전히 연구할 만하고 참신한 편이다.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연구가 유의미하다. 이는 청대 예서의 풍격 변화 및 예서 발전을 이해하는 데 일조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대표적인 저서로는 설영년(雪永年)에 의해 편찬된 『양주팔괴고변집(揚州八怪考辨集)』이 있는데 이 책에서 금농의 생애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금농의 서예와 회화 작품에 관한 자료를 부기한다. 변효환(卞孝萱)이 주필을 맡은 『양주팔괴연보(揚州八怪年譜)』에서 금농의 서예작품을 연대별 분류하였으며 장욱명(張郁明), 리위밍(李衛明), 황돈(黃惇) 등이 금농에 대한 개별 연구도 있다. 그 이외 김단(金丹)의 『이병수, 진홍수(伊秉綬·陳鴻壽)』에서 이병수의 생애, 특히 건가(乾嘉)시기에 그가 금석학의 영향을 받아 예서에 기울인 일에 상세한 서술이 실려 있다. 관련 학사는 문으로는 주소영(周小英)의 「이병수와 소학(伊秉綬與小學)」, 푸신생(傅信生)의 「이병수와 금석학(伊秉綬與金石學)」, 엽옥(葉玉)의 「문석리리최유정(文石離離最有情)」, 수도사범대학교 주락봉(朱樂峰)의 「건가학자서예연구(乾嘉學者書法研究)」, 하남대학교 하암(何巖)의 「이병수 서예예술연구(伊秉綬書法藝術研究)」가 있다. 금농 및 이병수를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적지 않으나 여전히 탐색할 여지가 많다. 선행 연구자가 금농이나 이병수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었으나 금농과 이병수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는 전례가 거의 없다. 게다가 그들의 예서실천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이에 본고는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의 공통된 기원 및 계승, 금농과 이병수 서예학 사상의 차이점, 예서실천 차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에서 확인된 교유활동을 참고하면서 그 시대의 서예학 풍조의 상황을 되도록 환원함으로써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의 실질적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금농은 비학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초기에 선도 역할을 했는가 하면, 이병수는 청대 예서 중기의 핵심 인물이었다.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를 비교하는 것은 청대 비학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혁신한 예서의 풍격 및 서예학 사상은 청조 예서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니 이 비교연구는 상당한 이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본고는 새로운 예서 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서 현재 예서의 실천창작에도 다소 지향적 가치가 있다.

II.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학습의 기반

금농(1687 강희26년 - 1763 건륭28년)은 전당(현재 절강성 항저우시)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사농(司農), 자는 수문(壽門)이자 길금(吉金)이며 호는 동심선생(冬心先生)이다. 유희재(劉熙載)는 그의 서예에서 그의 학문, 그의 재능, 그의 지향, 아무튼 그 사람 자체라고 금농의 서예를 높이 평가하였다. 금농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건문이 넓고 비각(碑刻)을 좋아했다. 초서와 전서, 특히 예서에 능숙했다. 그가 예서를 배웠던 시기에 여러 차례를 걸쳐 서첩을 구해 모사하여 고고관박(高古寬博)의 예술 기법을 살렸다. 또한 「화산묘비(華山廟碑)」, 「사신비(史晨碑)」, 「장천비(張遷碑)」, 「을영비(乙瑛碑)」, 「조전비(曹全碑)」, 「후각송(郟閣頌)」 같은 한비(漢碑) 석문을 두루 열람하였다. 금농이 『동심관명(冬心觀銘)』의 자서에서 ‘석문은 오봉각석(五鳳刻石)으로부터 한당시대에 이르러 팔 가지 유과가 있었지만 마음으로 모사하고 손으로 구하는 일은 가히 그 정신과 뼈대를 이어받다’고 말한다. (石文自『五鳳刻石』, 下至漢唐「唐」可能是「隸」之誤) 八分之流別, 心摹手追, 私謂得其神骨) 이로 미루어 보면, 금농이 예서에 힘을 쏟아지고 현대 석각의 기상을 본받고 살리며 서화가로서의 습성을 자랑했다. 청대 서예가인 이병수(1754-1815, 건륭19년-가경20년)의 자는 조사(組似), 호는 묵경(墨卿), 묵암(默庵), 정주(汀洲: 현재 복건성 Ning화 福建寧化) 사람이며

별명 임정주이다. 이병수는 한비 석각에서 예서를 배웠으며 역대 명석문을 많이 모사하였다. 그가 소장한 비석은 「한인명(韓仁銘)」, 「장천비(張遷碑)」, 「배잠기공비(裴岑紀功碑)」, 「사신비(史晨碑)」, 「북해상경군비(北海相景君碑)」, 「윤주비(尹宙碑)」, 「공주비(孔宙碑)」, 「형방비(衡方碑)」, 「백석졸사비(百石卒史碑)」, 「봉룡산송(封龍山頌)」, 「서협송(西峽頌)」, 「연각송(鄆閣頌)」 등이 있다. 이러한 수많은 한대 비석중에서 이병수가 가장 좋아하는 비석은 「장천비」와 「형방비」이다. 그가 가진 「형방비」에는 두드러진 흔적이 남겨 있는 것을 보면, 이 비석을 백 번이나 모사했던 것이다. 그가 작성했던 『유춘초당시초(留春草堂詩抄)」, 「형방비음, 동담계 선생이 계미곡 대령을 부치다(題<衡方碑陰>同覃溪先生寄桂未谷大令)」에서 ‘제가 이 비각을 흠모해서 백번이나 모사했다. 비각을 보면 무엇을 예기하자면 그것이 은근히 정신 및 성령을 드러난다(賤子竊慕之, 百本臨摹曾。臨書何足道, 陰出凝神靈)」고 하면서 계복에게 시를 써주었다 [1]. 금농과 이병수의 성공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한대의 벽돌문, 비각, 비문을 깊이 연구했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들이 비각의 글씨를 흉내 냈기만 하지 않고 그 것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독보적인 기법을 창출하였다. 청대 서예는 두 단계로 구별되었다. 하나는 명대의 첩학의 흥행을 이어진 명대 초기의 첩학이었네 이때 동기창과 조맹부의 첩학 서예는 최우수로 치고 그들의 기법을 구사하는 일이 영광스레 여겨졌다. 또 하나는 청대 가경연간 이후 대두한 고증학의 바람이 일어나자 고증 활동에 나서는 것은 서예연구의 중심사가 되어 버렸다. 같은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한대 비각, 와당, 청동 명문 및 벽돌문이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아서 비각 실물이 부족하고 취재 대상이 적은 형편이 바뀌게 되었다. 풍부해진 학습 자료, 첩학의 쇠퇴 및 비학의 흥성은 시대적이 요소로 작용했는데 ‘비학지상 주의(崇尚碑學)’이 천대 예서의 주류 사상이 되었다. 청조 비학의 본보기로 취하는 대상은 다양하고 한, 위, 육조 비판(碑版)은 모두 그것이었다. 새롭게 습득된 기법 및 출토된 비각 실물이 마치 활력소처럼 청대 비학에 넣어졌다. 전대와 다른 고(高), 줄(拙), 기(奇) 풍조는 청조 서예가의 서체를 일신했으며 새로운 미적 표준이 되었다. 청대 비학이 대두하면서, 많은 서예가들이 비학 연구에 참여하였고 예서에 있어서 또 다른 ‘혁신’을 이루게 하였다. 금농과 이병수 같은 서예가가 첩학과 비학

간에 양자택일해야 했을 때 후회없이 비학의 깃발을 높이 들자 ‘비학지상 주의’가 깊이 슬며 들어 주류 사상이 되었다. 예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변혁시키는 청대 서예가 중에서 기수(棋手) 역할을 한 금농과 이병수는 비학의 정신, 즉 후중(厚重)과 박졸(樸拙)을 서예실천을 통해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금농과 이병수가 추구하는 고졸의 미는 부산(傅山)이 제기했던 사녕사무 사상(四寧四毋)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녕사무 사상을 비롯한 부산의 서예이론은 청대의 서예학 심지어 청대 이후의 서예학에도 여전히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금농과 이병수의 서예 풍격은 고졸의 미, 즉 예서체 글자를 쓸 때 화교(華巧)보다는 고졸을 취하고 화교의 모습이 아닌 대교약졸 식 예서를 지향하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한대 비각 예서의 재현’이란 한대 예서에서 새로운 이념 및 실천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 과정은 복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복고는 옛사람의 행동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선택적으로 해독하여 그 정수를 취하고 찌꺼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서예가의 뛰어난 서예 솜씨가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모방할 예서 격조가 고고(高古)해야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예가가 예서 기법 및 변화 규칙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실천 및 실험을 걸쳐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 화용고인(化用古人)은 해안에 이르러 배를 버리는 것과 같다. 금농과 이병수는 예사람의 어깨 위에 서서 예사람이 예서실천에 있는 득과 실을 깨달아 자신의 예서를 개선하는 것이다. 복고출신(復古出新)의 핵심은 출신에 있다. 청대 예서의 ‘건축사’로 추앙 받은 금농과 이병수는 글씨 모양 및 글자 구조의 출신을 이루었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두 서예가가 자신의 예서 작품에서 복고출신이라는 창작원리를 구사하고 후인에게 복고출신을 배우는 기회를 남겨줬다.

III. 금농과 이병수 서예학 사상의 차이점

필획의 깨끗함과 농염을 중시하는 첩학은 정성기에 이르고 나서는 반드시 세속적이고 요사해지는 반면에, 비학은 필획의 기복 및 고졸을 추구하는 일파로서 마침 첩학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약이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것을 세울 수 없더니, 비학의 고졸은 첩학의 숙된 기조를 파괴할 때가 되면 비첩의 새로운

미적 표준이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 이러한 비첩의 개혁에 따라 서예는 대중적인 미적 표준과 점차적으로 부합했다. 이것은 시대적 선택이고 예술가의 이념적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모든 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 나가듯이 비첩의 개혁도 역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금농과 이병수 같은 서예가도 이 시대적인 관문에 있었겠으나 첩학의 요염을 지속하는지, 비학의 고졸에 몰두하는지에 대해서는, 금농과 이병수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분명하다. 비학은 청대 예서를 발전시켰고, 예서가 예전과 다른 고졸의 기세를 떨쳤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금농과 이병수는 순진하고 진실한 느낌을 찾아가면서도 고졸을 숭상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금농의 예서실천 시기가 3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첫 시기는 모방적 창작 시기다. 이 초기에는 야취(野趣)를 담은 그의 예서는 마치 마을에서 노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처럼 납죽하고 간단하며, 유창하고 역동성이 있다. 중기는 개척기였다. 과거에서 낙방한 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비판, 각석을 찾는 금농의 서예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금농이 붓을 힘 있게 누르고 가볍게 올려 쓰다는 ‘이졸위연, 이중위교(“以拙學妍, 以重爲巧)라는 이념을 지켰다. 이러한 이념 및 미적 취향은 그의 경험 및 성격과 직결된다. 그의 『동심선생집』자서에서 ‘내 천성은 그윽하고 고요한 편이고 홀로 사는 쾌락을 즐겼다’는 문장이 있다 [3]. 금농은 고졸한 서예예술을 숭상하면서 끊임없는 시도를 하였다. 또는 그가 서예 대가, 혹은 뛰어난 비각에 대해 경외심을 품었다. 금농은 경건한 마음으로 비각에 있는 서예 요령을 익히 배웠고 정리해서 귀진반박의 지경에 이르렀다. 이 귀진반박 사상은 그가 전인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을 완성한 첫 시기의 상고(尙古)에 바탕을 두어 형성되었다. 귀진(歸眞)은 서예가의 창작 과정에서 옛날 서예가 및 유명한 비각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서예가의 서예 역정이자 풍격 형성기였다. 금농은 그의 창작 과정에서 비학의 고졸의미를 추구하고 고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붓을 똑바로 잡아 금석의 운치를 드러냈다. 도끼의 질감처럼 횡획들 간에는 틈이 없지만 전환점에는 각이 많다. 물론 이 실천과정에서도 귀진반박 및 송고상졸의 서예이념을 지켰다. 고졸이라는 미적 표준은 역시 이병수 예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고졸에 시대적인 흔적이 있으면서도 이병수의 개인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서예작품에서 이러한 시구가 있다.

‘공연히 고의가 많이 생겼으니 새 시를 창작할 수 있다 (徒來多古意, 可以賦新詩).’ 그가 서예창작에 있어서도 고졸의미를 추구했다. 이 사상은 이병수가 옛사람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고의를 언다는 금석학 사상에서 파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송고상졸(崇古尙拙)의 이념의 형성은 이병수의 교유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병수와 친분 쌓인 원원(阮元), 옹방강(翁方綱), 계복 등은 모두 비학 일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들과의 교유 및 금석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병수가 요사한 첩학에서 벗어났다. 그가 비학에 들어가 아득하고 둔중한 풍조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고졸하고 순박한 금석의 취미도 즐겁게 누렸다. 송고상졸의 서예이념이 그의 실천을 지도하고 있었다. 이병수의 예서체에서 장엄하고 우아한 관각체(館閣體)를 엿볼 수 있다. 대지약졸이 그의 예서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다. 장엄한 분위기에서도 생동감을 잃지 않는데 그 생동감이 바로 이병수 서예의 줄이다. 교와 졸의 결합은 송고의 계승과 전승을 돋보인다. 고졸을 숭상한 이 서예학 이념에는 이병수의 정식하고 사심이 없으며, 침착하고 중후한 인격적 매력이 담겨 있다. 금농과 이병수가 글씨 중간에 두껍게 쓰는 것은 한비 및 마에 석각에서 배운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중후하고 옹혼한 기상을 본보기로 삼았지만 별도로 신선미가 드러났다. 질후위본(質厚爲本)은 역시 한비를 연구하는 일종의 학습 태도다. 잠두연미(蠶頭燕尾: 누에의 머리와 제비의 꼬리)와 같은 한비는 이병수의 예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그가 글씨 중간의 기복을 각별히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서예학 학자 왕동령(王冬齡)의 저서인 『청대서요론(清代隸書要論)』에서 ‘측봉(側鋒)을 위주로 하여 가파르고 썩썩하다. 대략 그 필봉이 가끔 옆으로 휩쓸기 때문에 횡획이 굵다’고 이병수의 예서를 평가한다 [4]. 이렇듯 필봉의 이동은 필력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예서체로 글씨를 쓰면, 중봉의 운필과 번갈아 쓰는 측봉은 예서의 기법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필력의 둔후를 가세할 수 있다. 금농과 이병수의 운필은 다변했으나 질후위본이라는 서예학의 기본적인 이념을 어긴 적이 없었다. 청대의 하소기(何紹基)가 『동주초당시초(東洲草堂詩鈔)』에서 ‘한 획으로 끝나면 사면이 있는데 어찌 둔후하지 않겠는가? 어찌 운치가 없겠는가? 어찌 옹혼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윽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금농과 이병수는 붓을 댈 때와 거둘 때 멈춤이 없고 계속 글을

이어왔다. 중간에 강한 기조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고박후중(古樸厚重)의 미감이 있다. 금농과 이병수의 두꺼운 먹물과 강한 필력은 실다허소(實多虛少)의 특징을 실렸다. 이 특징들은 금농과 이병수가 서예 서예학 및 예서 실천에 있어서의 절후위본이라는 기본원칙에 부합했다. 뿐만 아니라, 이 특징들은 그들의 심신수양을 형성화하는 결과물이기도 하였다. 청대 서예가인 금농과 이병수는 청대 예서의 혁신과 발전에 있는 서예학적 이념이 다르다. 이 차별된 이념으로 인해 그들의 풍격과 유파가 필연적으로 같지 않았다. 두 서예가가 모두 송고상졸에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귀진반박이라는 ‘상고’ 이념의 영향으로, 서예학 이념을 지양하고 발전할 때 금농과 이병수가 택한 혁신 노선에는 차이가 있다. 금농은 개신, 발전에 있어서 불추시류(不趨時流)를 주장한 반면에 이병수는 중정평화(中正平和)를 지향하였다. 금농의 불추시류 사상에 대해서는 청대 서예가 정섭운(鄭燮雲)은 ‘난발로 글자를 쓰고 깊은 산에 가서 시를 읊는다. 골수를 논할 것 없고 그 피부만 배운 사람이 누구냐고 했다 [5]. 금농의 서예 이념은 그이 학문 이념, 즉 아첨을 거부하고 자연의 순박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 탓에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자신만 믿는다는 것과 일치하다. 금농이 쓴 시구 중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은 같은 베틀로 실을 마구 짜며 용필은 자루와 같아서 땅을 쓸 듯 말 듯한다(銀機亂吐冰蠶絲, 用筆似帚卻非帚).’ 이 말에서 여러 명 스승에게 학문을 배운 후 그가 가진 예술적인 창작의 근본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두 시구는 금농이 창작했던 ‘칠서체(漆書)’와도 같다. 금농은 일찍부터 비백체(飛白體)에 관심이 있었다. 『초소대연명(草書大研銘)』에서 ‘서류 꺾질로 그자를 쓰는 것은 신선들의 유희로 믿는다; 먹 일 말을 같고 여섯 장의 종이를 준비하며, 양풍자에 양보한 황초를 쓴다’는 시구에서 그 관심을 볼 수 있다. 금농이 47세에 이 시를 썼는데 그가 중년에 이미 비백체를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은 생활에서 오지만 생활만이 아니듯 금농이 생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서예예술과 생활을 연결 지어, 거기서 서예예술의 참뜻을 깨달았다. 근현대 회가 제백석(齊白石)은 금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책을 읽고 비로소 그림을 알 수 있는데 금농은 기타 서예가와 전혀 다르다; 그가 일시의 속기를 싹 지우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한다’ [6]. 서예학에 업적을 내려오려면 반드시 출중한 지식과

함양이 있어야 한다. 금농은 시문, 서예, 회화에 모두 조예가 높은 것은 그가 학문을 깊이 다루는 자세와 관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가 속세를 초월했고, 시대의 흐름을 능가했으며 당시에 뿌리로 된 조잡한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났다. 탁월한 현대 화가이자 미술교육가인 류해숙(劉海粟)은 양주팔괴의 작품에서 금농의 작품을 가장 좋고 그가 독자적이 일파를 형성했다고 극찬했다. 독자적이 일파를 형성했다는 말은 금농에 대한 가장 적합한 평가로 여길 수 있다. 금농의 개인적 성격 상 시류에 합류하지 않고 타인과 차별되다는 매력도 대중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예 창작에 있어서 능동성을 발휘하고 독보적인 견해가 있어야, 예술의 해안 및 엄격한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금농이 늘 추구했던 예술적인 이념이었다. 이 이념은 ‘모두가 능히 한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이 더 낫고, 모두가 험뜯기보다는 혼자서 감상하는 것이 더 낫다(同能不如獨詣, 衆毀不如獨賞)’는 금농의 시구에서 제시한 바가 있었다. 서예가는 시류와 다르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 창작 과정에서 개성을 보유하고 예술 표현에 있어서 취사를 알아야 한다. 이렇듯 취사에 대한 상당한 민감도 유지, 독보적인 예술주장 제기 같은 예술 이념을 실천한 행동만으로도 금농은 족히 비교적 성공한 서예가로 간주할 수 있다. 서예 창작에 있어서 금농은 청대 중기 동기창과 조맹부의 첩학에 굴복하지 않고, 비학의 길을 걸어 북고에서 통달하고 계승에서 혁신하였다. 금농은 청대 예서 혁신의 선구자로서 서예풍조를 일신하였다. 그가 전통적인 첩학을 도전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금농의 불추시류의 서예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이병수는 중정평화의 서예학 이념을 가졌다. 이병수의 저서에서 중정훈후(中正渾厚)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병수가 조정에 벼슬을 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가 당시 관각체의 영향을 받아 정중하고 큰 서체를 지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서예를 연구하거나 모사했을 때도 한결같이 정필정신(正筆正心) 이념을 준수했다. 이는 서예작품을 모사할 때 시종일관하게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며 제기된 지 오래된다. 이병수가 어릴 때부터 시문과 책을 많이 읽었고 머리에 경사자집을 깊이 새겼다. 따라서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가 공(恭), 관(寬), 신(信), 민(敏), 혜(惠)의 유교사상을 따르고 이 사상을 자신의 인생 법칙

으로 삼았다. 마묵마인(磨墨磨人)은 글자를 쓸 때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속의 경솔함을 없애다는 것을 뜻하는데 마묵마인 관념을 실현해야 명작 법첩의 매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옛사람과 같은 무리를 상상하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글자를 쓰는 옛사람의 모습과 심정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 것은 길으로 보면은 극히 간단한 자아 관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철학적 지혜에 맞은 중국 서예의 매력이다.

이병수는 중화사상을 서예예술과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켰다. 명실상부한 건축사였던 그는 글자의 결구와 자형만을 창출하지 않았다. 집철된 유교적 중화 철학이념은 글자의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가 초기적인 기법이나 서예가가 추구하는 서예 기법을 떠나, 새로운 풍격을 만들어냈다. 서예 풍격은 서예 작품에서 직접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서예가의 인격과 어느 정도로 동일시될 수 있다. 도덕사상인 유교사상의 구속력 속에서 기른 이병수의 고결한 성품 및 굳은 지조때문에 그가 더 정대한 기상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예서가 크게 번성한 청대 사회에 중정절후의 품격을 갖게 된 것은 이병수의 깊은 유교지식과 연관성이 있다. 마음이 정직하면 붓도 반듯하게 잡히고, 붓은 반듯하게 잡히면 서예도 자연스럽게 고결한 풍조를 드러낸다. 인격이야말로 서예 이념의 최고 표준이며 서예가들의 서예에서 이 표준을 보여준다. 『논어』, 「술이편」에서 「지우도, 거우덕, 의우인, 유우예(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遊於藝)」라는 말이 있다. 유교사상 중 유우예(도에 모표를 삼아 예술을 노닌다는 것)는 인재가 되는 길이며, 도덕 심화의 계단이다. 서예 작품은 인품을 드러내다는 말처럼 이병수가 자신의 예서실천을 통해 자기의 예술적 이념을 명확하였는데 이 예술적 이념은 이병수의 인품과 아울러 중정평화의 경지에 도달했다. 금농과 이병수는 모두 返璞歸眞, 崇高尙古의 서예학 사상을 지향하는 점에 공통적이다. 이것은 서예를 배울 때 두 서예가가 모두 상고의 관념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서예학 사상 상의 차이점은 예서 풍격 및 특징을 형성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두 서예가가 모두 한대 예서를 바탕으로 예서를 개혁, 계승하였는데 금농은 不趨時流 사상을 지향했지만 이병수는 中正平和 이념을 추구했다. 따라서 금농과 이병수가 서예학 이념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금농이 제기했던 불추시류는 예서에 새로운 면모를

부여했으며, 독보적인 칠서체를 발전시킨 사상이었다. 다른 한편, 이병수의 중정평화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힘입어 예서를 장중한 기상으로 개혁해 나간 이념이었다.

IV.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작품의 차이점

금농의 예서실천 준비기는 39세까지인데 이 동안 그가 여러 서예가의 작품을 두루 열람했고 안진경과 왕희지의 필법도 배웠다. 금농은 안진경의 『마고선단기(麻姑仙壇記)』를 깊이 연구했고 그의 서예에서 안진경 필법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안진경 필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의 기(奇)와 괴(怪)를 되도록 살렸다. 금농이 소년시절에 금석을 좋아해서 금석 소장품을 많이 소장했다. 이것은 그가 예서를 전면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내려온 금농의 초기 작품은 희귀한 편인데 이 중에서 「범석호시(範石湖詩)」가 복건박물관(福建博物館)에서 수정되어 있다. 이 그림<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금농의 서예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동시대 서예가, 특히 정희(鄭蘆)의 서예작품과 같다고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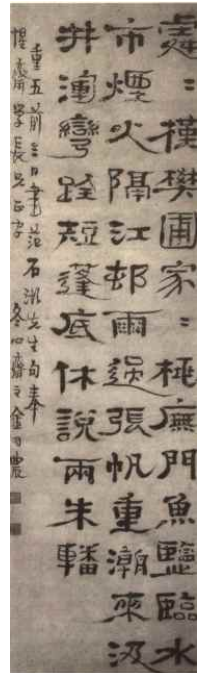


그림 1. 금농, 범석호시(範石湖詩) 복건박물관 141×40.7cm, 1722
Figure 1. Geumnong, Beomseok Hoshi Re construction Museum, 141×40.7cm, 1722

수 있다. 그리고 묵법, 필법과 장법 측면에서도 정희의 작품과 판에 박은 듯 같고 시대적인 면모를 보인다. 금농의 초기 작품은 비교적인 수려한 특징이 있다. ‘市’, ‘火’, ‘雨’, ‘過’, ‘來’, ‘變’, ‘兩’ 같은 외자의 획이 선명하고 여기서 붓을 두껍게 대고 가볍게 멈추는 기법을 발견할 수 있다. 한대 예서의 후중전아(厚重典雅)의 미가 아닌 경박함과 가냘픔을 드러냈다.

이병수의 예서가 계북의 예서와 같이 유명했고 출중했다. (‘秉綬工分隸, 與同時桂馥齊名.’ 『청사연전』) 이병수가 30세 이전에 창작한 작품에서 이미 성숙한 개인적인 기법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개인적인 특징은

예서에 해서체 기법을 첨가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이병수의 평정후중이라는 서예이념의 형성을 예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서에서 서체가 완비했지만 예서가 쇠약해진 당대에 흔히 볼 수 있는 당개(唐楷)의 흔적도 많이 존재했다. 당대에는 개서와 예서의 융합이 한 추세가 되었으나 청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병수는 당대, 한대의 서체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시대의 서예보다, 이 두 기의 서예를 많이 연구했다. 정리하자면, 이병수 초기 작품의 중요한 특징은 예개융합(隸楷融合)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가 중정후중의 품격을 형성하고 금석의 기세를 떨칠 수 있다. 금농과 이병수의 초기 작품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은 엄격한 규칙을 지킨 당개에서 양분을 흡수했다는 것이다. 금농은 『마고선단기』를 배웠고 이병수는 예개융합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작품에서 다소 차이점도 있다. 금농은 당시의 서예가, 특히 정희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기에 그의 작품에서 한대 예서의 후중전아의 미가 없었다. 이와 달리 이병수는 여전히 당예의 서체를 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정후중 및 금석의 풍미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병수는 동시대의 서예가와 거의 같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받은 양향도 보이지 않았다. 요컨대, 금농과 이병수가 예서실천 초기에 모두 한대, 당대의 예서체를 참고하고 배웠지만 금농의 작품에서 시대적인 흔적이 있고 타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병수는 한대, 당대의 예서체 격식을 계속 지켜서 중정후중의 특징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금농의 예서실천 성숙기(40-50세) 및 이 시기의 작품을 살펴보자. 금농이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식견이 넓다. 3년 동안 탁주 진장(澤州陳壯)에 있다가 순차적으로 산서성 태원(山西太原), 산둥성 곡부(山東曲阜)를 다녀 많은 비각 실물을 보게 되었다. 산둥 고부에서 완성하고 이 시대의 손꼽힌 대표작인 『왕용전(王融傳)』, 『왕수전(王秀傳)』에서 이미 정희 예서의 틀에서 벗어나 한대 예서의 품격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예서 풍모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왕용전』, <그림 2>에 수정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한대 예서의 기세를 느낄 수 있다. 금농은 수많은 한비 유파에서 뚫고 나가 각 유파의 장점만 계승하였다. 전체 예서 결구에 있어서 편장형(扁長形)의 결구를 채택하고 운필에는 누르기, 들기가 유창하므로 획의 라인감이 두드러진다. 횡획도 매우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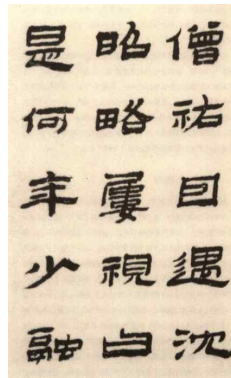


그림 2. 이병수, 왕용전(王融傳), 남경박물관, 27×16cm, 1730
 Figure 2. Lee Byung-soo, Wang Yong-jeon, Nanjing Museum, 27×16 cm, 1730

하고 횡획들이 아울러 더욱 다채롭다. 특히 주체적 필획은잠두연미(蠶頭燕尾)의 표준에 잘 부합하여 그 전 경조유미(輕挑柔媚)가 아닌 은근함을 훌륭히 돋보인다. 금농의 예서 풍격 연구에 다른 중요한 시기는 50-60세 기간인데 이 시기는 칠서체 형성기였다. 금농보다 132년 후(1819) 태어난 양현(楊峴)은 금농을 극찬하였다. 그가 집필했던 『지홍현소견서화록(遲鴻軒所見書畫錄)』에서 첫번째 금농의 서예를 칠서체로 명명하였다. 금농이 칠서체 형성기에 독보적인 풍격을 형성하였다. 그가 《사신비》, 《조전비》, 《화산묘비》를 본떠 썼다. 그래서 기필은 육정해지고 수필은 부드러움과 강함을 적절하게 하였다. 한간(漢簡)이 출토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간의 독특한 운필을 깨달았으며 농후한 한간 기세를 살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칠서체는 시간을 초월하여 용필이 흡사한 한간과 만났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금농이 한비 모사에 백가의 기법들을 지양하고 배웠다. 이러한 태도는 후인인 우리의 예서 공부에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병수가 한대 비각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벽돌 비문에 대한 연구도 깊었다. 예서실천 성숙기(30-50세) 동안에 이병수의 풍격은 일견 필획이 깨끗하고 힘있으며, 동글고 윤택하지만 두툼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원필과 방필을 동시에 사용하고 『원중대방 방중대원(圓中帶方, 方中帶圓)』 이념을 실천했다. 전체적인 기세를 보면, 가장 뛰어난 특징은 청대 예서의 질후(質厚)에 있다. 자형이 육중하고 넓다. 게다가 관객체의 기세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리 딱딱하지 않았다. 먹물은 옷 같은 농후한 먹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습농담(枯濕濃淡)의 변화를 줄였으나 상당한 포만감을 드러냈다. 이병수가 끊임없이 한비를 배웠다. 아래 <그림 3>는 그가 33세에 모사했던 『장천비』이다. 이를 보면, 이병수가 원래의 비각에 충실한 태도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비 학습에 전체적인 기세 및 풍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외자를 섬세하게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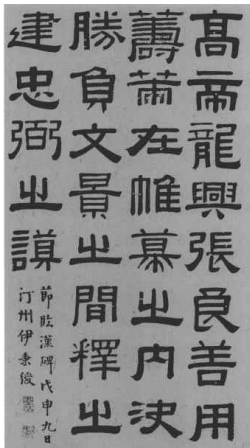


그림 3. 이병수, 장천비, 고궁 박물관, 138.9×38.1cm, 1783
Figure 3. Lee Byung-soo, Jang Cheon-bi, Palace Museum, 138.9×38.1cm, 1783

『장천비』를 비롯한 한비 작품은 이병수에게 좋은 학습 자료였을 뿐더러, 그 순박함과 온순함은 이병수의 예서 창작을 뒷받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청대 유명한 학자이자 서예가인 양장거(梁章鉅)는 그의 『퇴암수필(退庵隨筆)』에서 이외에 옥허주, 임길인 같은 사람이 손목의 힘이 부드럽다. 이병수와 계복은 한대 예서의 진수를 받았다. 이병수는 한대 예서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화장시켰으나 계복은 한대 예서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간소화시켰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병수의 예서는 한대 예서의 특징을 확대하면서도 한대 예서의 기운을 잃지 않았다. 그의 중기 작품은 글자를 크게 쓰고 기백과 구조를 중요시하다는 특징이 있다 [7]. 아래 <그림 4>는 이병수가 50세가 된 해 예서체로 썼던 『상서고려요횡폭(尙書考靈耀橫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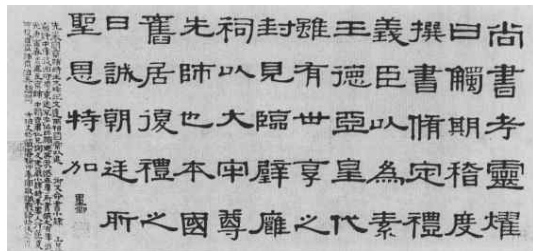


그림 4. 이병수 상서고려요횡폭(尙書考靈耀橫幅) 중국서점출판사, 60×138cm, 1804

Figure 4. Lee Byung-soo, Sangseo, Goryeo, Hoengseong (尙書考靈耀橫幅) China Bookstore Publishing Company, 60×138 cm, 1804

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이 실천 방법은 전면적인 학습 방법, 즉 전체에서 일부, 일부에서 전체로 공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세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장천비』의 풍격 측면에서 이전의 한비처럼 규범만 따르지 않고, 결자구조가 선명하며, 위쪽이 크고 뻣뻣하지만 아래쪽이 작고 성기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취미성이 있고 격식적이지 않다. 운필에도 잠두연미처럼 간결 명료하고 변화가 많다.

이 작품을 보면, 이병수가 이미 예서법과 개서법을 자유롭게 융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운필에 있어 ‘잠두연미’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약화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예서가 정중하고 경박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바로 이러한 실천을 걸쳐, 예사람을 그대로 본받지 않은 이병수가 전체 구조 상 각 외자의 중심을 위로 배열시키는 예서 장법, 즉 상제하불제(上齊下不齊)라는 장법을 독보적으로 창출하였다.

정리하자면, 금농과 이병수가 예서실천 중기에 모두 한대 예서를 본보기로 명확했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금농은 『사신비』, 『조전비』와 『화산묘비』를 본떠 쓴 반면에 이병수는 『장천비』를 가장 깊이 연구하였다. 한편 작품을 비교해 보면, 예서실천에 있는 차이점도 살펴볼 수 있다. 금농은 실천 중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예서의 고의(古意)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때 칠서체의 기반이 될 개인적 풍격을 확립하였다. 이병수는 예서실천 중기에 원정(圓靜)의 미를 추구했기 때문에 글자의 경중 변화가 섬세하고도 비교적 부드럽다. 중정평화는 이 시기 이병수의 예서 특징으로 꼽힐 수 있다. 다음으로 금농의 예서실천 말기이자 전성기(65-77세)를 살펴볼 것이다. 경력이 풍부함에 따라 금농의 기법도 끊임 없이 공교로워졌다. 혁신 정신을 띤 칠서는 금농의 개인적인 특색이 되고 금농이 같은 시기의 예서가를 능가케 하였다. 금농이나 금농의 제자들이 ‘팔분서(八分書)’를 썼지만 ‘칠서’를 쓴 적이 없었다. 이로 보면, 칠서는 금농의 예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헌 자료를 보면, 칠서라는 용어는 예로부터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장희관(張懷瓘)의 『서단(書斷)』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금농의 예서를 칠서로 부르는 계기는 무엇이였을까? 금농이 죽은 후에 서화 연구자 및 소장가들은 칠서의 개념과 금농의 서예 특징, 즉 파원위방(破圓爲方)과 칠을 한 것 같다(似刷漆之跡)는 것을 연구하다가 칠서를 금농 예서의 대명사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예서실천 말기에 들어 금농의 예서는 칠서가 되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밀하소(上密下疏)와 두조미세(頭粗尾細)다. 그가 65세 썼던 『동몽팔장(童蒙八章)』 <그림 5>에서 금농의 칠서체가 끊임 없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빼놓을 수 없는 예서 결자이 『상학경축(相鶴經軸)』이다.

『동몽팔장』과 『상학경축』을 비교해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다. 금농의 칠서체는 점점 성숙해졌다. 육중해진



그림 5. 금농, 동몽팔장(童蒙八章), 소주박물관, 32.8×969.3cm, 1751
 Figure 5, Geumnong, Dongmong Paljang, Soju Museum, 32.8×969.3 cm, 1751

칠쳐 용필에 획들 간의 좁은 공간은 더욱 좁아지고 넓은 공간은 더욱 넓어졌다. 뿐만 아니라 획의 말단에도 생동감이 가득 차다.

서강(徐康)은 『진진몽영록(前塵夢影錄)』에서 금농의 친필이 적게 내려오고 내려온 것도 대부분은 불완전하다고 개탄하면서 칠서체의 특징을 장방후활(長方厚闊)로 요약했다. 이처럼 이때 금농의 칠서체는 기타 예서의 미감과 다른 독립적인 예서 미적 기준이 되었다. 재미있게도 근대 학자인 장종상(張宗祥)은 『서학원류론, 소원편(書學源流論, 溯源篇)』에서 금농의 서예를 절서(切書)로 지칭했다. 예서체에서 유래된 절서의 특징에 대해 장종상은 전환점이 많고 평평하고 느리게 기필을 하며 측봉을 내린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후세 학자들이 금농의 칠서체를 평가할 때, 짙은 먹과 세련한 용필은 칠서체의 독보적인 생명력으로 귀결된다. 지속적인 개선 및 개혁 끝에 이병수가 예서실천 전성기(51-61세)를 맞이했으며 개인적인 서예 풍격을 품었다. 1807년에 양주지부(揚州知府)로 부임한 기간에 그의 대자 예서체(大字隸書)는 이미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지부를 하다가 부친상을 당했다. 벼슬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서예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병수 만년에도 같은 시기의 문인묵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교유 생활은 이병수 예서 형성을 연구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실마리다. 이병수가 『십삼경

주술(十三經註述)』, 『경적찬고(經籍纂詁)』, 『황청경해(皇淸經解)』, 『산좌금석지(山左金石誌)』, 『연경실집(研經室集)』 등 책을 편찬한 서화 이론가 및 양주학파의 선구자인 완원(阮元, 1764-1849)과 가장 친하게 지냈다. 금석 완상에 관심이 있는 이병수와 완원은 서로 금석 소장품을 증정하여 지음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병수가 비학에 대한 식견도 넓어졌다. 완원의 대부분 예서가 창망하고 박졸(朴拙)한 특징을 띤 한대 예서 작품인 『석문송(石門頌)』을 본받았다. 대부분이 절벽에 우뚝 새겨진 『석문송』에 글씨 곡선은 질이 소박하고 힘있으며 자형은 웅대하다. 앞에서 예기했듯이 이병수가 비학에서 미친 영감이 깊다. 예를 들어, 그가 완원의 『남북서파론(南北書派論)』과 『북비난첩론(北碑難帖論)』 같은 대표적인 비학 저서에서 비학 이론을 배웠다. 만년에 들어가자 이병수의 예서 풍격에서 다양한 비파(碑派)의 요소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서 실천에 이병수가 예서에 비적(碑的) 필법을 더 해 예서를 창망하고 중후하면서도 소박하거나 졸렬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이병수가 글씨의 공간 배치를 조정하고 자형을 두껍고 공고롭게 만들었다. 따라서 필획 구조에 재미가 있다. 이 시기에 이병수가 벼슬생활을 하면서 예술적인 경험도 많이 쌓

여졌다. 그가 만년의 예술적 인 경험을 방정(方正), 기사(奇肆), 자중(恣縱), 경이(更易), 감생(減省), 허실(虛實), 비수(肥瘦), 호단변화(毫端變化), 출호완하(出乎腕下), 응화응신조의(應和凝神造意), 막가망졸(莫可忘拙)라는 32자 격언으로 명확히 요약해서 자손에게 남겨 주었다. 이병수 만년의 대표작은 아래의 『변화도야예서대련(變化陶冶隸書對聯)』과 <그림 6>이다. 『변화도야예서대련』에는 ‘변화기질, 도야성령(變化氣質, 陶冶性靈)’이 적혀 있다. 이 대련에 드러난 예서는 전서체의 정형적인 구조 및 둥글고 유창한 전서체 필법을



그림 6. 이병수. 변화도야에서 대련(變化陶冶隸書對聯) 중국서점출판사, 138.9×38.1cm, 1805
 Figure 6. Lee Byung-soo It's a change. Yeseo Dalian (變化陶冶隸書對聯) Bookstore Publishing Company, China 138.9×38.1 cm, 1805



그림 7. 이병수, 유래직취에서 대련(由來直取隸書對聯) 중국서점출판사, 138.9×38.1cm, 1815
Figure 7. Lee Byung-soo Dalyon of Origin Directly Chilled Yesseo(由來直取隸書對聯) China Bookstore Publishing Company, 138.9×38.1cm, 1815

리, 잠두연미의 약화와 곡선 중단에 기복의 첨가가 두 가지 중요한 표준으로 적용했다. 이병수는 곡선 중단에 필력을 더하고 전서와 예서의 구조 및 필법을 함류하여 포만하고 운택한 금식의 기세를 자랑했다.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는 어느 청대 예서보다 시대를 혁신하는 정신이 더 두드러진다. 복고출신이라는 역사적인 사망감은 이 두 서예가가 뛰어난 실천이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었다. 이에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실천 말기에 공통점이 있다. 금농과 이병수가 모두 짙은 먹물로 농후하고 운택이 있는 경지를 만들었다. 용필 측면에서는 경중과 완급을 분별하여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구조 측면에서는 두 서예가가 모두 상밀하소의 필획 구조를 계승 받았다. 다만 현대 예서의 잠두연미의 표현방법을 약화시키는 데에 금농보다 이병수가 더 적극적이었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다소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정진한 예서 기법을 바탕으로 한 칠서체가 등장하였으며 이것은 금농 서예의 대명사가 되었다. 칠서체 및 이와 관련된 풍격의 형성은 성공적인 개인 사례로 취급될 수 있다. 반면에 이병수는 자신의 예서를 부단히

대거 활용하였다. 전체적 기세는 박출하고 세련하며 기이하다. 필획이 생략된 부분도 있는데 점획에는 여백감이 있으며 획획에는 힘이 넘친다.

한편 『유래직취에서 대련』에는 “유래의기합, 직취정진(由來意氣合, 直取性眞) <그림 7>같은 글씨가 있다. 이병수가 만년에 짙은 먹물을 사용했는데 먹색이 검고 광택이 났다. 이 대련에서의 ‘直’, ‘眞’, ‘來’, ‘意’ 등 글씨의 변화 특징은 졸렬함 속에 공교로움을 띠고, 미세한 필획에 교모함이 있으며 필획이 작지만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병수의 예서는 현대 예서나 동시대의 예서와 달

개선, 개혁함으로써 결국 이병수다운 서예 풍격을 창출하였다. 이병수의 서예 작품에 비파(碑派) 적 요소가 풍부하다. 비적 필법의 활용에 따라 예서가 창망하고 육중하게 되면서도 소박하거나 졸렬하지 않았다. 공간 배치에 대한 적절한 조정은 자형이 육중하고 공교롭게 했다. 이로써 이병수의 예서는 필획의 구조가 참신하고 취미성이 있다. 금농과 이병수는 혁신 방안을 탐구하고 다양한 풍격을 추구했다. 이 두 서예가들이 필법, 장법, 묵법에 모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작품에서도 획기적인 특징을 드러냈다.

V. 결 론

서예사에서 금농(金農)과 이병수(伊秉綏)의 위상이 높고 그들의 서예 작품에도 시대적인 특징이 지었다. 금농과 이병수의 서예론적 연구에 상당한 업적이 쌓여 있지만 이 두 서예가의 작품과 이론에 대한 비교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보고는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했다. 비교연구 방법으로는 금농과 이병수의 서예 풍격의 특징 및 서예학 사상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고는 현대 예서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차원에서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작품과 서예학 사상을 살펴보았다.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에서 공통된 기원과 계승 과정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청대 서예가가 모두 고인의 뜻을 지양하고 현대 비각을 모사하여 대가가 되었다. 현대 예서는 예서의 전성기로서 금농과 이병수에게 다양한 풍격과 모본이 제공해줬다. 금농과 이병수가 서예 사상에 있어서 모두 귀진반박, 숭고상졸의 이념을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금농은 불추시류의 이념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이병수는 중정평화의 이념을 추구했다. 마찬가지로 현대 예서의 개혁과 계승에 있어서도 이 두 서예가들이 추구하는 이념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약속이나 있듯이 금농과 이병수는 모두 복고출신의 사명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러나 두 서예가들의 예서실천 과정이 다르므로 창작된 예서의 풍격도 다를 수밖에 없다. 금농과 이병수가 수많은 서예가들 중에서 균계일학이었다. 이것은 금농과 이병수는 현대 예서의 혈맥을 성실히 이어받았으며 시대적인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농과 이병수의 독창적인 예서 풍격 및 특징은 후인의 혁신적인 실천에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금농과

이병수의 예서 풍격, 특징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사했던 비각들까지도 후세의 예서 연구 동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Jindan, D. "The Complete Works of Chinese Calligraphers", Hebei Education Press, 2006, 56.
- [2] Zhu Renfu, The History of Ancient Chinese Calligraphy, Peking University Press, 1992, 469.
- [3] Jin Nong, 'Jin Nong Ji', Zhejiang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16, 3.
- [4] Wang Dongling, An Essay on Li Shu in Qing Dynasty. Shanghai Calligraphy and Calligraphy Publishing House, 2000, 348.
- [5] Jin Nong, 'Jin Nong Ji', Zhejiang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16, 250.
- [6] Jin Nong, 'Jin Nong Ji', Zhejiang People's Fine Arts Publishing House, 2016, 250.
- [7] Cui Erping, "On Books of Ming and Qing Dynasties", Shanghai Dictionary Publishing House, 2011 1070.